

호남의 임진왜란, 그 승리의 기록



'임란첩보서목'

국립나주박물관 '전라도 천년' 특별전 첫 전시

26일~5월 20일... 전남해안 임란 소개
충무공 친필 글씨·'수군조련도' 등 눈길
연말까지 '삼별초...' '전라 명품' 특별전



현자총통



'수군조련도'

올해는 '전라도'라는 지역의 이름이 지어진 지 1000년 되는 해다. 경상도나 충청도라는 이름보다 훨씬 더 오래된 이름 '전라도'. 고려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현종에게 요청되거나 다름없었던 전라도는 정치뿐 아니라 문화·지리적 관점에서 그 위상이 만만치 않았다.

전라도 천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전남북 일원에서 펼쳐지는 가운데 문화재를 통해 천년의 전라도 역사를 조명할 있는 특별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국립나주박물관(관장 박중환)은 전라도 천년을 기념해 특별전 시리즈를 개최한다.

이번 시리즈는 모두 세 차례로 나눠 전라도 민초들의 의기와 전라도 문화재를 엿볼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 전시는 오는 26일(5월 20일까지) 문을 여는 '호남의 임진왜란, 그 승리의 기록'이다. 나주 출신 무속공 최희량이 쓴 임진왜란 승전보고서인 '임란첩보서목'을 중심으로 임란 당시 전남해안 일대에서 전개된 전황을 소개한다. 이 전시는 국립나주박물관과 고흥군, 수성최씨 무속공파 종회의 세 기관·문중이 힘을 모아 개최해 의미가 남다르다.

최희량은 1594년 무과에 급제해 지금의 고흥인 흥양의 현감으로 재임하면서 순천·영광 일대에 근거지를 두고 남해안 서부지역을 위협하는 왜군과 맞서 많은 전공을 세웠다. '임란첩보서목'은 흥양 일대 전투에서 사살되거나 사로잡은 왜병의 수급과 새로 제작한 무기의 내용 등을 통째로 이순신 장군

에게 보고한 보고서다. 이 첩보서목(보물 제660호)에서는 붓으로 쓴 이순신 장군의 친필 글씨와 그의 서명인 수결이 담겨 있다.

이 전시에서는 각 지역에서 수집된 수군들이 연합 훈련을 하는 장면을 그린 '수군조련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도 볼 수 있다. 두 척의 거북선 그림과 영광, 목포 지역 수군들이 탑승한 판옥선들이 진을 이룬 그림에서 당시의 격렬한 해전을 짐작하게 한다.

나주박물관에서 1차 전시가 끝난 뒤, 고흥분청문화관에서 6월부터 2차 순회 전시가 열린다.

두 번째 특별전은 전라도 천년과 함께 올해 1100주년을 맞는 고려의 건국을 기념해 국립나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강화역사박물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삼별초와 동아시아'(6월 26일~8월 19일)이다.

삼별초의 탄생부터 마지막까지의 과정을 강화도의 강화중성, 전남의 진도 용장산성, 제주 향파두리성을 따라가며 소개한다. 또 마지막 근거지였던 제주도의 향파두리 요새가 함락된 이후 일본 오기나

와로 건너간 삼별초의 흔적도 조명한다. 특히 고려 대장경, 진도 용장산성 출토품, 일본 다카시마 해저에서 인양된 몽고 침입관련 출토품 등 문화재 200여 점에 전시된다.

마지막 특별전은 전라도 예술의 정수를 모은 '전라 명품전'(9월 18일~12월 2일)이다.

전시회에는 광주와 전남 그리고 전북에 있는 각 시대를 대표하는 국보나 보물급의 명품 문화재 50여점이 한 자리에 모인다. 특별히 전북 익산의 미륵사지 서탑에서 발굴된 미륵사지 금제 사리봉안기와 사리병도 전시될 예정이다. 전북에 존재하는 문화재가 우리 지역으로 옮겨져 소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화로는 보물 제1722호인 '총마계회도' 등이 출품될 예정이며 지난해 88년만에 고흥의 품으로 돌아온 나주 서문석등(보물 제364호)도 눈여겨볼 만한 문화재다. 문의 061-330-7819.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추사·다산·소치 등 '호남 명현 유묵'전

4월 8일까지 은암미술관

전라도 정도 천년기념 '호남 명현 유묵'전이 오는 4월 8일까지 광주 은암미술관(관장 채종기)에서 열린다.

이 전시에는 14세기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시문과 서첩, 병풍, 주련, 편액 등 30여 호남명현의 유묵을 선보인다. 특히 '성산계류탁열도', 다산 정약용의 '성학십도', 14세기 고려시대 '천자문'은 최초로 공개되는 작품이다.

전남 지역에서는 진도에서 20여년 동안 유배생활

을 했으며 동국진체의 완성자인 이광사, 백광훈, 고경명, 정약용, 허련, 김정희, 손재형에 이르기까지 30여명 호남 명현들의 필력을 감상하며 서예에 담긴 선조들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전북지역의 서예가로는 창암 이상만, 석정 이정직 등의 작품이 전시된다. 대표작으로는 1590년께 식영정과 환벽당이 그려진 '성산계류탁열도(星山溪柳濯熱圖)'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16세기 말 담양을 중심으로 한

호남 선비들의 교류와 풍류를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또한 정약용이 퇴계 이황의 '성학십도(聖學十圖)'를 응용하여 쓴 10폭 병풍도 눈여겨 볼만 하다. 첫면에 '경(敬)' 글자를 크게 써서 퇴계 선생에 대한 공경의 표시를 강조하였으며, 1도에서 10도에 이르기까지 성학십도에 대한 풀이를 써서 이해도를 높였다. 문의 062 231 529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성산계류탁열도(星山溪柳濯熱圖)'

화사한 꽃으로 피어난 유년의 추억

진원장 '꿈의 정원'전

4월 30일까지

무각사 로터스갤러리



▶ '꿈의 정원'

도심속 사찰 무각사에 봄이 한창이다. 매화가 꽃망울을 터트렸다. 무각사 로터스갤러리에서 오는 4월30일까지 열리는 진원장 작가의 '꿈의 정원'전은 봄날과 딱 어울리는 전시회다. 로터스갤러리는 작은 책방과 차 한잔 나눌 수 있는 곳이 함께 어우러진 공간이다.

지난달 말, 30년 넘게 학생들과 함께 해온 조선대 미술학과 교수직에서 퇴임한 진 작가는 이제 광주 총장으로 작업실로 옮기며 작업을 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광주시립미술관 '오늘의 작가' 초대전을 찾은 무각사 정학삼님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스님은 "꽃피는 봄날이면 좋겠다"는 청을 했고, 진 작가는 흑독히 추웠던 지난 겨울을 나며 신작 작업에 몰두했다.

전시장에서 만나는 그림들은 화사하다. 작품의 소재는 작가의 정겨운 유년시절의 추억들과 더불어 마음 속 상상의 세계에서 길어올린 풍경들에서 따왔다.

진 작가는 지난 2002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교환 교수로 머물 당시 새삼스레 '그림'에 대한 고민들을 하며 모색을 시도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소묘에 중점을 두기도 하고 현대적인 감각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다양한 실험도 했다. 귀국 후 단색화로 고흥의 보리밭을 그리기도 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모색했던 그는 유년의 추억과 꿈이 담긴 현실적 소재·풍경들과 상상과 비현실 세계에서 만날 수 있는 소재와 풍경이 어우러진 '꿈의 정원' 시리즈를 시작했다.

신작들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서는 살구꽃, 새, 거북 등 다양한 꽃과 나무를 비롯해 몽게구

름, 푸른 초원 등 자연을 담은 작품들과 자전거를 타고 경쾌하게 달려가는 여성의 모습이 어우러진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아크릴 물감을 바른 후 그 위에 다시 유화를 입히는 작업을 하는 진 작가의 작품은 독특한 질감을 나타낸다. 특히 다양한 소재들을 돋보이게 하는 배경색이 인상적이다. 수백번의 붓질을 통해 찾아낸, 작품 '정원의 기억'의 오묘한 푸른빛 바탕색이나 화폭에 무수히 등장하는 나무, 풀, 꽃 등의 발색(發色)에 생생함을 부여하는 짙은 남색과 주황색 등이 눈길을 끈다. 또 이번 전시작 중에는 구체적 형상을 조금씩 해체한 후 상상성을 가미한 연작들도 눈에 띈다.

같은 이름의 연작 시리즈는 자칫 지루해 보일 수 있다. 진 작가는 인물을 넣고 빼거나, 배경에 변화를 주거나, 새·꽃·나무 등 다채로운 소재들을 적정한 위치에 배치하며 보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진 작가는 "대작 작업에 몰두하다 이번 전시를 위해 소품 위주로 작업하며 즐겁게 다양한 시도들을 해 볼 수 있었다"며 "작품 속에 등장하는 풍경들은 마음의 꿈을 표현한 것들"이라고 말했다.

진 작가는 조선대 미술대학장과 미술관장을 역임했으며 지금까지 미국 찰스 아담스 갤러리 전 등 27차례 개인전과 초대전을 가졌다. 대한민국현대회화협회(국립현대미술관), 한국회화의 향방과 이미지전(필라델피아 홀튼 갤러리) 등 다양한 그룹전에도 참여했다. 문의 062-383-007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국제교류센터 24일 '즐거운 저녁 음악회 봄길'



고규남

김미옥

싱그러운 봄을 맞이해 광주국제교류센터가 '즐거운 저녁 음악회 봄길'을 선보인다. 24일 오후 5시 광주국제교류센터 1층 GIC홀.

첫 무대는 김성태의 '산유화'로 시작된다.

이어 김동진의 '목련화', 슈베르트의 '봄의 찬미', 윤학준의 '마중', 김동환의 '그리운 마음', 임금수의 '강 건너 봄이 오듯이' 등으로 꾸며진다. 이 날 공연에는 소프라노 김미옥, 테너 고규남, 소프라노 윤하나 등이 출연한다. 피아니스트 동수정이 협연자로 등장한다.

참석을 원하는 시민은 광주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국제교류센터 음악회는 3월부터 6월까지 매월 1회씩 진행된다. 문의 062-226-2732. /전은제기자 ej6621@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내 집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분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당일 주문 오찬 정식

알찬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명상 사당이 갖춰진 동·서구로의 연회장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광주맛집 since 1981 37년을 고객과 함께 지겨운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